

## ■ 영상택배 시즌2 - 전봉준의 길을 걷다 1부



이번에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녹두장군 전봉준 이야기입니다.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땅 걷기 이사장 신정일 선생과 함께 걷는 전봉준 장군의 길입니다. 130여년 전 전봉준 장군은 어떤 생각과 고민 속에서 고부 길을 걸었을까요? 이번 주에는 1부를 전해드립니다.

## 한승훈 회원 신간 출판



우리 연구원 한승훈 회원(원광대 HK연구교수)이 <무당과 유생의 대결>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칼럼필자로도 활약중인 한승훈 교수는 이 책에서 조선시대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된 종교개혁의 역동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덴마크와 안델센(1)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국왕이 살고 있는 광장 풍경

덴마크는 BC 12000년 무렵 부터 인류가 살고 있었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세계에서 가장 역사 깊은 사회복지제도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며, 또한 생활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러운 나라이다. 덴마크는 아직도 국가원수가 국왕이다.

이러한 일반적 사실보다도 덴마크를 얘기하면 아마도 동화 작가 안델센을 떠올릴 것이다. 그만큼 안델센은 나라 이름 만큼이나 세계적인 동화 작가로 명성을 얻고 있다. 나 역시도 안델센의 동화를 여러 편 읽어 본 터라, 그가 살던 곳을 가보고 싶었다.

또한 그와 함께 '덴마크의 국부'라는 존칭을 받고 있는 그룬트비의 숨결도 느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 없이 덴마크로 출발하였다.

코펜하겐 중앙역에 도착하여 역사를 나오니 바로 앞에 안내소가 있기에 들어가서 시내 지도와 유스호스텔 팜프렛을 구했다. 숙소를 우선 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팜프렛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로 예약을 하였다. 그 당시 덴마크의 전화 거는 방법은 우리나라와 달랐다. 먼저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올려놓은 다음 수화기를 들고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이때 상대방이 받으면 동전이 들어가면서 통화가 시작 된다.

숙소 예약이 되었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생소한 북유럽의 도시 경치를 즐기며, 유스호스텔 행 버스 출발지가 있는 시청으로 걸어갔다. 시청광장에 있는 정류장에서 2번 버스를 탔다. 버스 타면서 내릴 곳을 얘기 했었는데, 20분쯤 후에 기사가 내리라고 알려 준다. 약도를 따라 조금 걸으니 유스호스텔 마크가 그려진 팻말이 눈에 들어왔다. 유스호스텔은 길게 늘어선 울창한 가로수 끝머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분위기가 공원인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서 체크 인 하니 메니저가 103숫자가 찍힌 열쇠를 주면서 1층으로 가라고 알려준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1층에 103호실이 보이질 않는다. 알고 보니 그들의 1층은 Ground 즉 바닥이고 2층이 1층이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예로부터 맨 아래층은 층의 개념이 아니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것도 일종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혼동이었다.

그렇게 하여 방을 찾아 짐을 내린 후에 곧바로 그룬트비 기념교회를 찾아 나섰다. 다행히 그룬트비 기념교회가 유스호스텔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거기부터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시내 지도를 보니 유스호스텔에서 그룬트비 기념교회까지는 버스 세정거장 정도의 거리였다. 그래서 인근 경치를 구경도 하고 지형도 파악할 겸 나섰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걸었다. 생소한 거리풍경에 도취되어 멀다고 느끼지 않고 한 20여 분 걸었을까? 어느 건물 모퉁이를 지나다보니 높고 웅장한 교회가 보였다.

높이가 엄청난 그룬트비 기념교회는 보통 카메라로는 담을 수가 없어서 광각렌즈를 사용하였다. 이 기념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을 형상화하여 건축하였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금방이라도 파이프 오르간의 장엄한 소리가 울려 퍼질 것만 같았다.



그룬트비 기념교회 전경

말이 나온 김에 그룬트비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루터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시인이고 종교가이며 역사학자였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도 덴마크의 부흥에 온 생애를 바친 농민 교육자였다. 특히 그는 영국을 여행하면서 영국 국민의 자유와 실제생활 그리고 교육제도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귀국하여 당시 덴마크 교육은 죽은 교육이라 자책하며 생활학교를 주창하였다.

교육에 대한 그의 이념은 결국 국민대학을 창설하기에 이르렀고 이 국민대학은 덴마크 청년들로 하여금 패전으로 황폐해진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였고 이는 결국 덴마크를 세계적인 농업국으로 발돋움하며, 복지국가로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의 국가적 공헌도 때문에 그가 떠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국부(國父)로 존경받고 있다. 실로 그의 명성은 기념교회 만큼이나 높고 튼튼하다.

그룬트비에 도착되어 어두워질 때까지 웅장한 기념교회를 카메라에 담으며 그 주변을 서성이다가 숙소로 돌아 왔다. 아침에 눈을 뜨니 새들의 소리가 들렸다. 궁금해서 밖으로 나갔다.

유스호스텔 정원의 나무와 풀 숲을 헤치고 보니 작은 호수가, 나무사이로 비친 아침 햇살로 반짝거리고 있었고 건너편에 보이는 아담한 집들과 한가로이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백조, 야생조류들이 한 폭의 그림이고 동화 속의 한 장면이었다. 특히 저렴한 숙소의 자연환경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믿기지 않았다.

더욱 신기한 것은 내가 물가로 발길을 옮겨 놓으니, 나의 인기척을 느낀 새들이 갑자기 나에게로 몰려온다. 크고 우아한 백조도 내 발밑까지 와서 무어라 떠들어 댄다. 사람 소리만 나면 도망치기 바쁜 우리 주위의 날짐승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새들의 무리 속에서 잠시나마 평안을 느끼며 다른 세상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았을 안데르센에게서 「들판의 백조」, 「미운 오리 새끼」, 「인어 공주」 등 세계적인 동화가 탄생한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덴마크 도착 후 하루도 채 안되었는데, 이미 안데르센의 동화의 세계에 들어 선 것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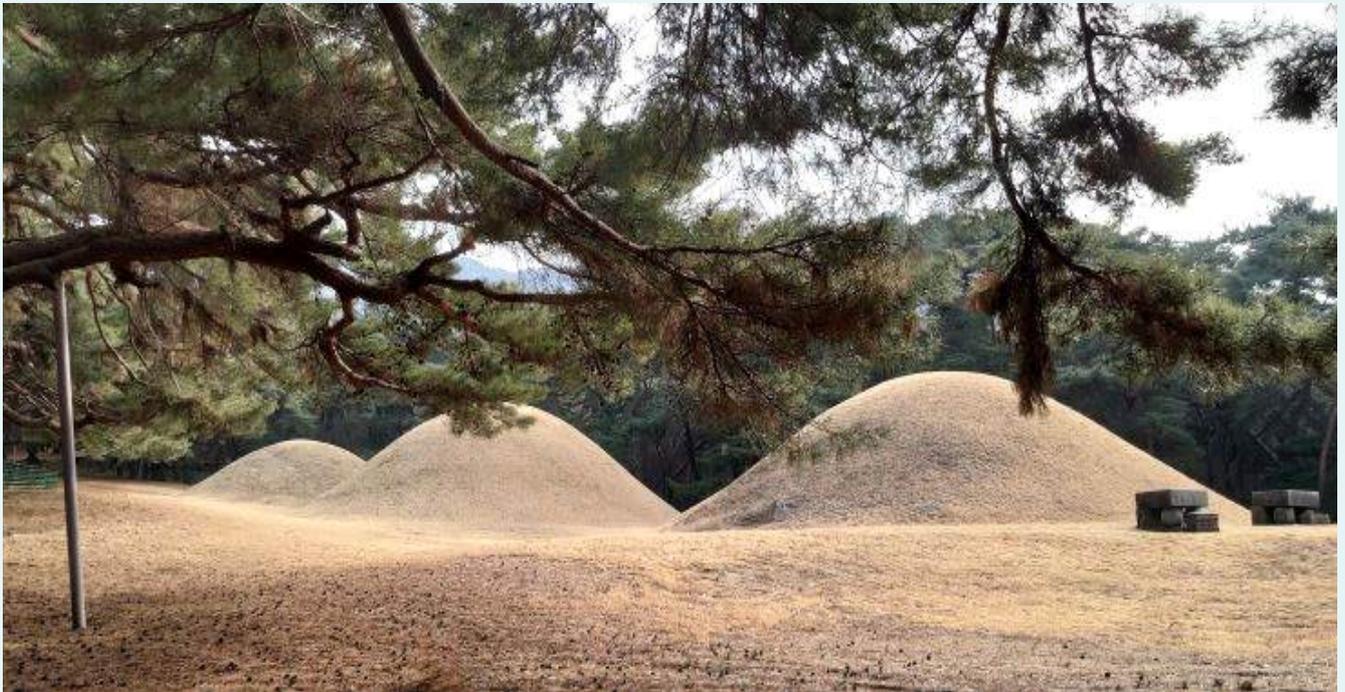


유스호스텔 정원의 동화 같은 풍경

## ■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서

### 경주 남산의 서쪽 기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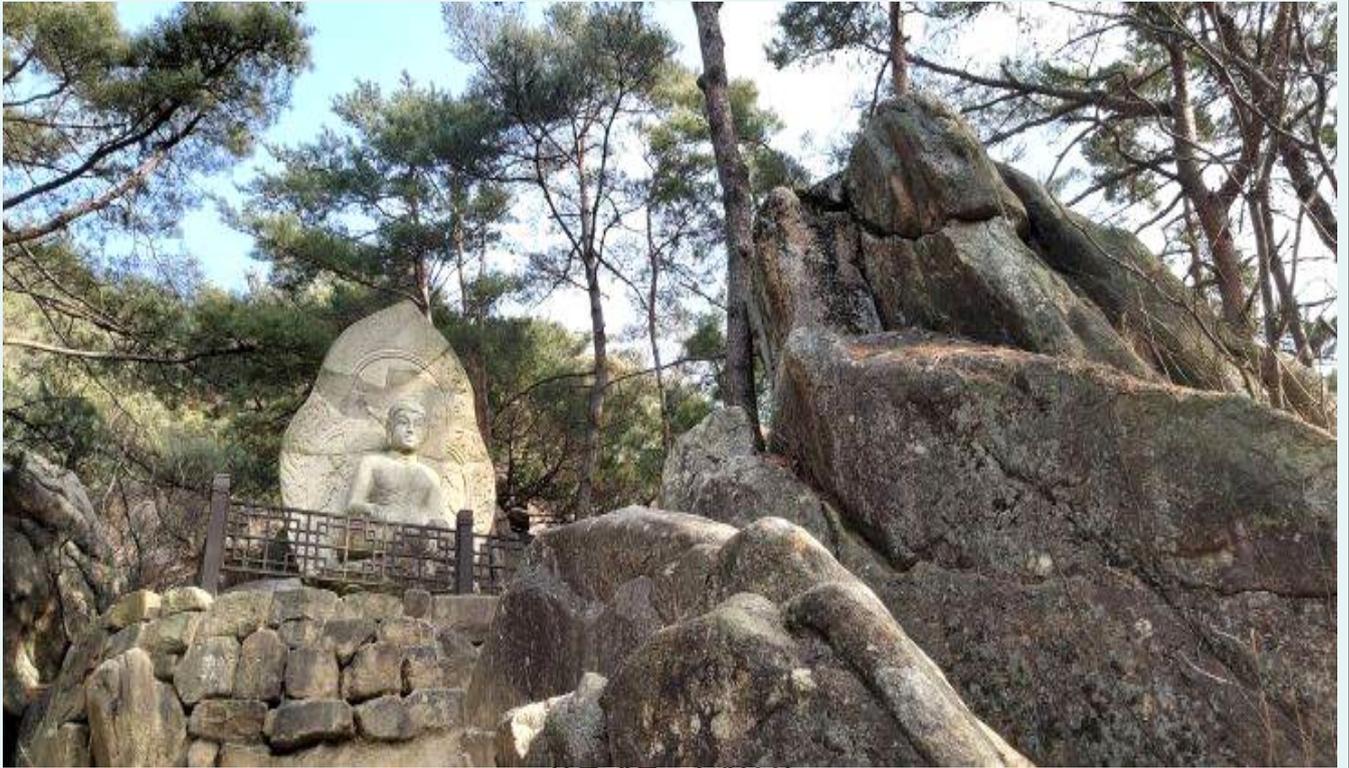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삼릉

경주 여행의 백미는 누가 뭐래도 역시 남산이다. 불국토(佛國土)의 구현을 꿈꾸던 신라인들은 이곳에 수많은 절을 짓고, 부처님을 새기고, 탑을 세웠다. 그 자취는 천년을 훌쩍 뛰어넘은 오늘날에도 찬란하게 빛을 뽐낸다.

삼릉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금오봉으로 향했다. 삼릉과 경애왕릉 주변의 경건하고도 신비스런 숲은 여전히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말없이 천년의 역사를 푸른빛으로 증명했다. 장구한 세월을 온 몸으로 느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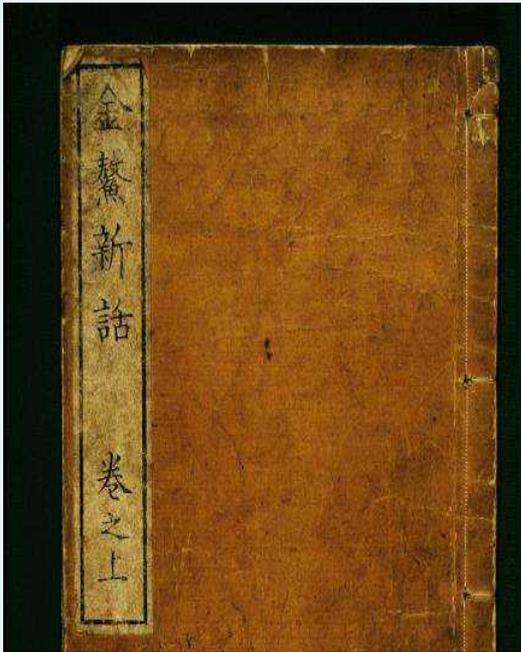


삼릉계곡 마애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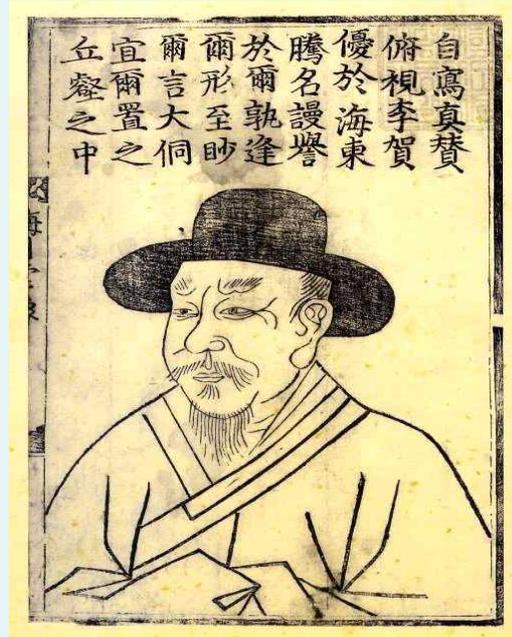
그리고 마주한 마애관음보살상. 150cm 남짓한 크기의 이 불상은 아직도 입술에 붉은빛을 띠었으니, '미스남산'이라고 이를만하다. 아울러 석굴암의 부처님 닮은 석조여래좌상과 곳곳에서 등장하는 선각마애불. 남산은 정녕 경주사람들이 받은 커다란 선물이자, 축복이다. 불국토가 어찌 불국사(佛國寺)에만 구현되었던가?

코로나-10의 여파로 남산에도 인적이 드물다. 텅텅 비었다고 말할 만했다. 그러나 들려왔다. 아니 삼릉계곡이 찌렁찌렁했다. 수많은 신라인들이 석불과 불탑과 절간을 세우느라 돌과 나무를 쪼고 두드리는 소리로, 밥과 술을 내느라 바빠 오가는 여인들의 웃음과 수다로 골짜기 안이 떠들썩했다. 하늘에서 수많은 천인(天人)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내려왔다.

금오봉을 지나 하산길로 고른 용장계곡의 초입에서부터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선생이 동행을 했다. 그리하여 선생보다 두어 걸음 뒤처져 걸었고, 때로 선생의 뒷자리에 앉았다.



금오신화



매월당 김시습

선생은 다섯 살 때 벌써 천재 소년으로 이름이 났으니, 당시 좌의정을 지내던 허조(許稠)가 일부러 집으로 찾아가 만나보고서, 그 영특함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더구나 세종대왕께서 허조의 말을 전해 듣고, "내가 불러 보고자 하나, 남들이 해괴하게 여길까 두렵다. 너무 드러내지 말고 잘 가르치도록 하라. 나이가 들고 학업이 성취되면 내가 크게 쓰겠노라."하면서, 비단 50필을 상으로 내려주도록 하였다.

명을 받은 허조는 선생을 궁으로 불렀다. 그리고 비단 50필을 전해주면서 혼자만의 힘으로 가져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선생은 주저없이 여러 벼슬아치들 앞에서 비단의 꼬트머리를 죄다 이은 다음, 마지막 끝단을 허리춤에 매어 끌고 나왔다. 이를 계기로 도성 안의 사람들은 그가 어리다고해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 대신 다섯 살짜리, 곧 '오세(五歲)'라고 따로 불렀다. 그러나 선생은 마침내 세조(世祖)의 왕위 찬탈 소식을 전해 듣고 청운의 꿈을 꺾은 뒤, 스스로 방외(方外)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가? 설악산 오세암에서 출가한 선생은 세상을 두루 떠돌다가, 이곳 용장사(苴長寺)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금오신화(金鰲新話)』로 승화시켰다. 선생의 법호(法號)는 동봉(東峯) 또는 설잠(雪岑)이었다.

하산 길에서 선생이 건너뛰면 뒤따라 건너뛰고, 고개를 숙이면 뒤따라 숙였다. 잠시나마 기꺼이 선생의 아바타가 되었다. 언젠가 선생은 한양에 나타나, 권력만을 쫓던 동문수학 서거정(徐居正)의 행차를 가로막고 일갈을 했다. 도성의 권세가에서 자제들을 가르쳐달라고 선생에게 앞 다투어 보내면, 선생은 도리어 이들에게 농사하고 나무하는 일만 줄곧 시켰다. 선생은 이따금 책상 앞에다 농사꾼과 나무꾼의 형상을 손수 깎아 세워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크게 통곡한 다음, 이를 불길 속에 던져 넣었다. 어떤 날에는 나무 잎사귀에 시를 써놓고, 통곡 속에서 흐르는 물살에 띄우기도 했다.

어느 날 단종복위운동이 탄로 나자, 성삼문(成三問)을 비롯한 여섯 신하들의 목이 새남터의 형장에서 잘렸다. 누구도 이 여섯 구의 시신을 거두면 역모의 가담자로 몰리는 시절이었다. 이때 한 승려가 나타나 이들의 시신을 거두어 한강 건너 노량진 길가의 남쪽 언덕에 몰래 묻었다고 하는데, 이 승려가 바로 김시습이었다고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은 전한다. 이 언덕은 오늘날 사육신묘역으로 남았다. 선생은 승려차림으로 이리저리 조국의 산하를 떠돌다가, 노년에 충청도 부여의 무량사(無量寺)에서 한 많은 세상을 버리셨다.

선생은 용장마을까지 전송을 나오셨다. 길게 하직인사를 올리는데, 가슴 한쪽이 자꾸 아렸다.



용장사 삼층석탑



용장사 윤형석탑

다음 주는 <경주 답사기> 두 번째 이야기 “여근곡과 주사암”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